



김성후 교수의  
자동차로 유럽여행 2부

<8> '꽃의 도시' 피렌체

# 세기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와 피렌체의 만남

이탈리아는 고대로부터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 도시형 국가였으므로 커뮤니티라는 동네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래서 로마의 스페인 광장이나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시에나의 캄포광장 등이 비탈진 곳에도 조성된 것처럼 수많은 광장이 고대로부터 건설되었지만 이탈리아에서 너른 잔디밭은 어디서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피사는 자그마한 항구도시지만 넓은 잔디밭에 조성된 두오모 광장과 그곳의 두오모, 그리고 세레당, 기울어진 종탑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카데미아 미술관에는 미켈란젤로의 3대 걸작품인 다비드 조각상이 우람하게 전시되어 있다.

## 르네상스 중심도시·메디치 가문 영광 도시 관광지구엔 성당 모여 군락 형성 미켈란젤로 광장 석양 '3대 풍광' 꼽혀

의 반열에 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우리네 교과서에도 소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석양이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난 미켈란젤로 광장엔 1873년 그의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여 다비드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다. 그래서 젊은 연인들의 로맨틱 코스이다. 야경까지도 한 몫을 한다. 피렌체의 석양은 붉은 지붕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인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의 석양과 야심한 로마의 환상적인 야경,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베네치아의 새벽녘 풍경은 필히 놓치지 말아야 할 3대 풍광으로 꼽기도 한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도시로서 메디치 가문의 영광과 영향력이 있었고 찬란한 문화유성이 있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관광객이 부쩍 늘어난 꽃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꽃피는 마을이란 뜻의 플로렌스라고 한다.

2천년전 율리우스 시저가 보라색 꽃이 핀 아르노 강변의 마을을 플로렌티아라고 부른 것이 피렌체가 되었고 그 이름처럼 피렌체는 꽃처럼 아름다운 도시로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리는 도시를 관통하는 아르노 강변의 현지인 주택에서 일박을 고집했다. 가장 유명한 다리로서 1117년에 건조된 베키오다리 바로 옆 우피치 아파트에서의 일

박은 그들의 속살을 살살이 보고 느끼는 소중한 체험이었다. 이층문을 거쳐 올라간 2층은 천정이 왜 그렇게 높은지... 가구 뿐만 아니라 많은 실내 장식물도 참으로 매력적이었다. 여행자가 볼 만한 호화양장 관광안내 책자도 여러 비치되어 있어 흠뻑했다.

그러나 뒷타이 나고 말았다. 다음날 자가 견인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사태를 직감한 필자는 이내 해결책을 찾아 일행을 진정시켰다. 겨우 영어를 알아듣는 여성 택시운전사의 도움을 받았다. 전날 노상주차 가능 여부를 몇 차례나 물었지만 잘못된 무책임한 정보였다.

한편, 여행이 끝난 후에야 적색 원이 하얀 바탕에 그려진 교통표지는 차량진입 금지구역이라는 점도 깨달았지만 이미 귀국후에는 몇 회에 걸쳐 쓰라린 돈이 빠져 나가고 말았다. 현지어로 ZTL (zona traffico limitato)은 영어 traffic limited zone으로서 교통통제지역을 뜻한다. 이탈리아에서 자동차여행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ZTL인데 필자는 교통사고가 가장 무서운 것으로 알았을 뿐이었다. 디자인의 천재인 그들이 왜 긍정을 뜻하는 적색 원만 그려 넣어 경각심을 주지 않았을까 이해할 수 없다. 유독 이탈리아만 잘 보였던 구도심에 주민 외에는 차량진입을 금지



마사초의 '성삼위일체'가 있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하는 도시가 많다는 점을 나중에야 파악했다.

도시 관광지구엔 여러 성당이 모여 인접해 군락을 이루는 것이 의문이 들었다.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주요 작품인 마사초의 '성삼위일체'가 있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미켈란젤로의 손길이 많이 갔지만 미완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산 로렌초 성당, 피렌체의 상징 두오모인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등등. 그리고 성당메디치 가문의 무덤으로 사용된 메디치 예배당도 있다. 메디치 가문의 궁전인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은 별도이다. 피렌체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두오모의 쿠플라리는 지붕의 둘 지름이 42m이나 되고 전망대 역할도 한다. 그 옆의 조토의 종탑도 그 85m 높이만큼 시내 어디에서도 눈에 들어온다.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는 라틴어로 '꽃다운 성모 마리아'란 뜻이고 두오모는 라틴어 도무스

에서 기원한 말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다. 대체로 두오모는 그 도시의 대표 성당을 일컫는데 주교좌 성당을 두오모라고도 한다.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은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로 유명해져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그 곳에 가면 꼭 기념촬영을 하는 곳이다.

우피치 미술관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있고 아카데미아 미술관에는 미켈란젤로의 3대 걸작품인 다비드 조각상이 우람하게 전시되어 있다. 그 손등에는 핏줄도 선명히 드러나 있어 주목을 했다. 다비드 조각상 하나가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을 좁은 미술관으로 밀려들게 만들고 있으니 관광대국 이탈리아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의 구경은 다음 편으로 다룬다.

/동신대 교수·호텔관광학과

# 통일·평화기원 세계인 함께 달렸다

'One Korea!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어제 광주서 열려  
시민 2만명 자전거로 국토 종주... 15일 임진각서 완료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전 세계인이 함께 달리는 'One Korea 피스로드 2019, 통일대장정'이 8일 광주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김동찬 의장, 장병안 국회의원, 서대석 서구청장, 김진휘·반명환 광주 공동실행위원장 등 광주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대회는 중주기 전달식과 대회사, 축사, 평화 메시지 낭독, 자전거 출발 순으로 진행됐다. 자전거 동호회원 등 종주자 150명은 광주시청 광장을 출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까지 7km를 달리면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다.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광주대회는 평화대사협의회, UPF(천주평화연합)가

주관하고 통일부, 행정안전부,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세계일보, 신통일한국국민연합에서 후원했다.

이병훈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정치이념과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남북통일의 새로운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글로벌프로젝트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통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지혜를 모아 분단 70년의 슬픔과 고통을 마무리하고 통일 100년의 미래로 다가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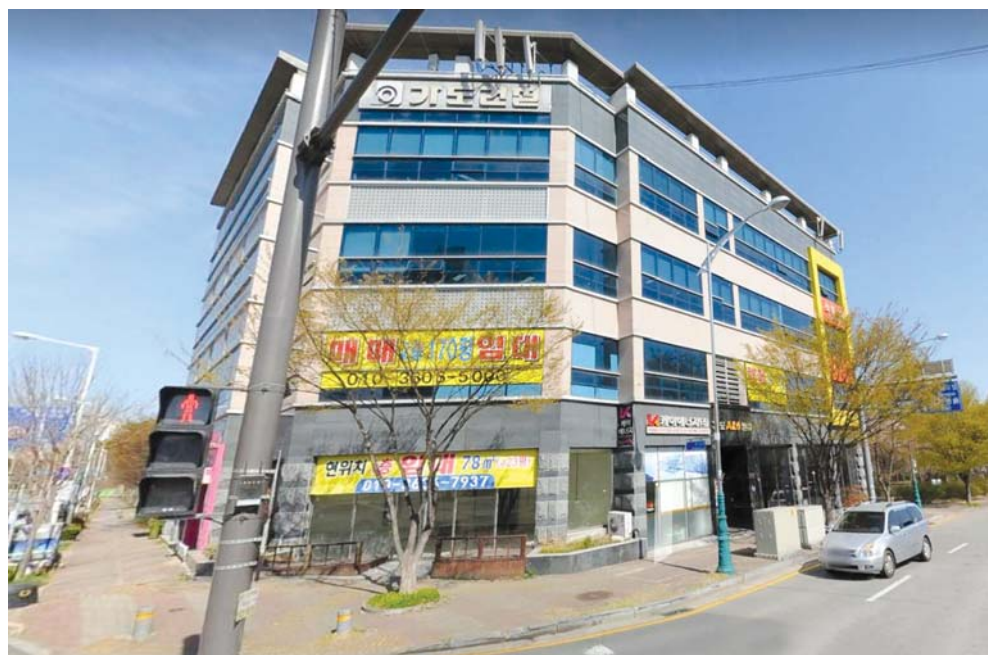
올해 피스로드 세계대장정은 지난 3월 파주 임진각에서 각계 지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One Korea 피스로드 서울평양 통일대장정' 출발 선언식을 가졌고, 이어 4월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피스로드 세계출발식을 갖고, 아시아와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에서 130여개국 40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가별로 한반도 통일과 지구촌 평화를 염원하며 자전거 라이딩을 펼치고 있다.

문평래 한국공동실행위원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이 곧 세계 평화의 초석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8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One Korea 피스로드 2019 통일대장정 광주지역 출정식에 참가한 각계지도자, 평화대사, 탈북민 대표 등이 자전거를 타고 금남로를 달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대출-3억5000만원있음 즉시입주가능
- 임대 - 보증금1억에 월400만 가능
- 매매 - 매수자 제시 요망(8월14일까지)

문의. 010-6834-7400